

인터넷=넷스케이프

(完) Netscape의 설치와 활용



성연중

<전자계산공학과 석사4기>

글신는순서

1. LAN이란 무엇인가
2. 학교 네트워크와 전산실의 구성
3. telnet, ftp의 활용
4. Netscape의 설치와 활용

수 많은 서비스가 있다. 지난호에 소개된 텔넷과 FTP가 인기 있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이 모든 서비스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WWW (World Wide Web)이란 것이다. 왜 '이 WWW가 이렇게 쉽게 우리곁에 다가 왔을까? 그것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WWW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브라우저(Browser)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브라우저

pher, FTP를 이용할 수 있다. News와 mail을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하는 컴퓨터와는 별개로 뉴스서버와 메일서버가 필요하다. 넷스케이프, FTP 등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TCP/IP 관련 조정이 필요하다.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윈도우95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부분에 관련한 조정은 전산실에서 배운 책자를 참고 해야 한다. 특히 IP주소 부분은 반드시 전산실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우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가입을 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10여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가 있으며, 유명한 곳은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한국통신, 아이네트 등이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넷

브라우저중 가장 편리한 프로그램 학교 네트워크 사용시 IP 주소 필요

중 현재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넷스케이프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하면 W-WW서비스가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넷스케이프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하면 WWW서비스가 떠오르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브라우저중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메일을 보내고 받을 때 이용한다.

넷스케이프를 설치하는 방법은 단순히 넷스케이프 설치 파일을 윈도우95상에서 클릭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설치된 넷스케이프를 갖고 WWW, go-

스케이프는 16비트 버전과 32비트 버전, 유닉스(unix), 맥킨토시 용이 있다. 16비트 버전은 윈도우 3.1에서 32비트 버전은 윈도우95, 윈도우NT에서 사용한다. 넷스케이프와 같은 웹 브라우저들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읽어 들여 우리가 볼 수 있게 일정한 형태로 보여준다. 여기에서 이 html형식의 파일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인터넷 웹 브라우저(Internet Web Browser)들인 것이다.

논문실 사고 빈번 사용법 기재해야

입학해서 처음으로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의 학위 논문실을 가게 되었다. 논문실에 들어서자 어떻게 논문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논문실 사용법에 관한 글을 찾아보았으나 사용법에 관한 글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처음엔 그렇게 불편함이 다가왔다. 다행히 찾았지만, 논문의 책꽂이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의 같은 굵기의 같은 색깔의 표지로 된 수많은 책에서 원하는 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고 높은 곳에 꽂혀 있는 책을 보면서 목이 뻐뻐해져오는 통증까지 느껴야 했다. 이런 정도의 불편함은 개가알람실에서도 있는 일이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위 논문실에서 암사당할만한 사건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책꽂이와 책꽂이 사이의 좁은 공간이 불편했음에도 논문은 훑어보는 도중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겼다. 갑자기 뒤에 있던 책꽂이가 움직이더니 날 앞에 짓누르는 것이었다. 나는 사람 있다는 소리까지 지르며 책꽂이가 멈추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책꽂이는 이동성으로 자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멈춤장치를 올려놓아야 했던 것이었다. 또한 그 날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들 두번이나 목격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그런 일이 빈번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의 관찰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그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으나, 멈춤장치를 올려놓으라는 주의표시가 잘 보이는 곳에 써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행히 나는 학위논문실의

사용법을 사고를 당함으로 몸소 터득해서 또 다시 그런 사고를 당할지는 없었지만, 다른 학생이 그 같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측은 논문실의 눈에 띄는 곳에 주의내용이나 사용법에 관한 설명을 써놓기 바란다.

김현철

<국문 1>

제기능 못하는 스쿨버스

버스운전 기사 학생의면

서원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다면 수원캠퍼스는 '넓음'이 자랑이다. 비록 학교입구로 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연대까지 걸어가는데는 대략 20분 가량이 소요되지만 학생들은 이 '넓음'을 자랑스러워 하며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대 앞과 산업대 앞 그리고 자연대 앞에도 정류장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스쿨버스를 타고 캠퍼스를 오가도록 했다. 그러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은 점점 그 모습을 감추고 있고 정류장은 학교안을 오가는 자동차를 유치하듯 하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자연대를 가기 위해 외국어대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 적이 있다.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몇분 기다리다 보니 기다리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꼭 버스를 타고 말겠다는 오기가 생겨 20분 가량을 홀로 보냈다. 몇분 후 버스는 학교입구에 모습을 나타냈고 곧 정류장 앞에 멈춰 섰다. 그러나 버스는 학생들이 내리고 나서 문을 확 닫아버린 채 출발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기다리고 있던 몇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매정하게 떠나버린

기사 아저씨가 미웠고 이런 이유때문에 정류장은 그 기능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기사아저씨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명의 기사아저씨들로 인해 학생들의 원망의 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넓음'을 자랑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사아저씨들의 행동은 너무하지 않나 싶다. 줄거운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나올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최순필

<전자전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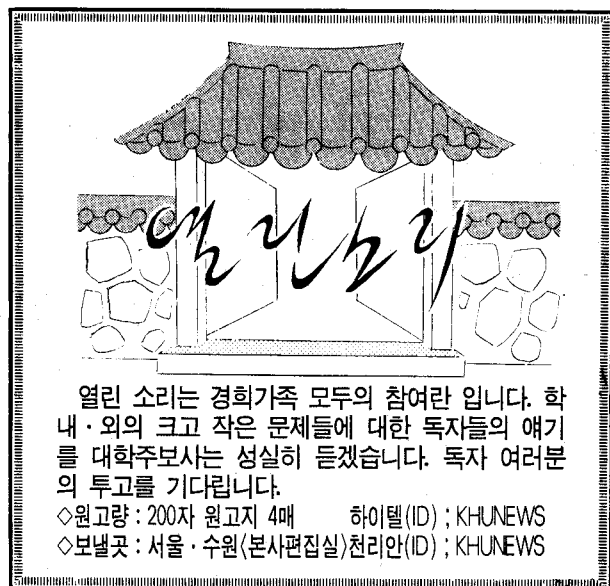
VOU, 시기성 없는 기사 섬의있는 방송 질

수원캠퍼스 학생회관에서 다룬 학우들과 더불어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던 나에게 웃지 못할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학생회관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TV에서 11월 2일자의 기사를 내용으로한 문자방송이 방영되고 있었다. 정확하게 28일에 2일자의 기사를 본 나는 그대도 혹시나 최근의 내용들이 나올까 하는 기대에 계속 지켜보았지만 거의 보름전의 기사들을 반복해서 내보내는 무성의함에 나는 점심을 먹는일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중간중간에 나오는 NBA농구는 방영되고 있었던 프로그램 전체를 다속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서원캠퍼스에서 점심시간대의 학생회관 식당은 그 어느곳보다도 학생들로 붐비는 장소이다. 이와같은 장소에 지나버린, 이제는 아무런 이슈조차도 되지 않을 법한 문자방송을 내보낸다는 것은 방송하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느낌이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기 위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 KHUNews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천리안(ID) : KHUNews

한 노력이 방송프로그램에 녹아 있어야만 그 프로는 좀더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점심시간 학생회관식당에 모이는 많은 학우들의 시선이 TV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학생회관식당에 TV수상기가 놓여있는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VOU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바란다.

나현우

<외대영문 4>

학점으로 선택되는 전과 객관적인 평가안 없어

임시대의 점수에 따라 선택한 잘못된 학과선택 때문에 후회하면서 4년동안 흥미 없는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과제도가 있다는 얘기는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렇지만 전과를 하는데 있어 지원자가 그 학문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학점으로 평가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흥미도 없는 학과에서 좋은 학점을 받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며, 좋은 학점을 받고 있으면서 다른과로 전과하려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이 그 전공분야에 얼마만큼의 배경지식과 관심이나 전문성을 먹고 있는냐에 대한 평가는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평가이어야 한다.

이제는 한번 잘못된 선택에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적성을 바로 찾아 발전시킬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정당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나마 발견한 기회를 놓치게 하는 제도는 이 름만 있을뿐 실효가 없는 것이다.

전주희

<미교1>

고침

지난 1106호 7면 머릿기사 제목에서 '김병민 군'을 이병민군으로 바로잡습니다.

朔風

요즈음 대기업에선 사내카페가 인기인 모양이다.

경기불황으로 쉼터해진 직장분위기 속에서 술평대는 쉼터라멘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아이디어란다. 별도의 운영자없이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이 하루씩 당번을 정해 '마담'이 되기도 하는 이 사내카페는 지체 높으신 사장님도 오늘 하루는 입담 좋은 마담이 되어 직원들에게 커피며 주스 같은 차실부름에 소파 청소, 자판기 관리까지 해내야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내카페는 역시 사지(易地思之)의 마담이 되어 나름대로 인기도 있고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기도 한다는 얘기가.

그러나 한마디로 병주고 약주는 셈이다.

"직업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아서 직업을 빼앗는다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조선 말한 실학자의 말처럼 생활인에게 직업이란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경기 불황 탓에 명예퇴직이 속출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가장들이 많아 지는데 그 책임을 고비용저효율의 인력구조 탓이라고 한다면 월급쟁이들이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난한 가시밭길 뿐이다.

지금껏 자율적 분위기에 익숙해 있던 대학도 이제 체질개선을 위해

별볼일 없는 세상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교육개혁이니 감량경영이니하여 군살 빼기에 여념이 없다. 지출을 줄이고 웬만한 곳에는 신규직원을 절대 채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필요해도 지금까지도 잘 해 왔으므로 앞으로 역시 잘할 것이라고 격려한다. 마치 케릴라 부대처럼 소수의 정예요원이 텔런트가 되어 장수도 치고, 복도 쳐대야 한다. 한마디로 이제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경영합리화 정책인지 또 효율적인지는 꿈꿀 때마다 따져봐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저임금 경제로 회생되어 질수 있다고 믿는 것은 꿈이다. 그럴리도 없

고 억지로 짜맞춘 인력구조의 틀이 온전히 서 있을리 없다. 오히려 고임금으로 생산력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해야 한다. 겨우 돈 몇푼 절약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소량의식이 내재된 책임감은 부여하지 않고 잡다한 기능만을 강요한다면 그 조직이 효율적일리는 만무하다. 다이어트 위해 노력하다 군살 아닌 제살 깎아 먹기 십상이다.

이것 명예퇴직을 강요해 놓고 사장이 날라다 주는 커피 한잔에 용이 리진 마음을 달래기에는 별 볼일 없는 인생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이래 저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살기 힘든 세상이다. <痴笑夫人>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출연금의 많고 적음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필코 세계초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1996.11.25~11.30)

△정학모(진로스포츠 사업단 사장, 체육13회 졸업)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정동성(충동문화재단, 체육10회 졸업) 체조마루매트기증 체육진흥기금 1천만원
△산업관계연구소(소장 경영학과 박가안 교수) 1천만원
△이준식(건설부장, 2차분) 1백만원
△김병진(법과대 행정학과 교수, 1차분) 1백50만원

△백영숙(자연과학대 화학과 교수) 2백만원
△이시동(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백만원

*경희발전기금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안내
발전기금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위하여 -96년도 일시를 납부자 : 영수증을 발급, 발송 중임.
-급여공제(교직원)대상자 : 96년도 발전기금 급여공제 전액을 경리과에서 자동으로 공제해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의 기부금영수증을 경리과로 제출하지 않아도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기술휴머니스트-쌍용

"인간을 위해 태어난 기술이
이제는 지구와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최후의 기술, 그것은 인간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박사는 1963년 루게릭병으로 2년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불굴의 의지로 죽음과 장애를 극복. 지금은 우주의 신비에 가장 근접한 세계 제1의 천체 물리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인간을 위한 기초기술 개발, 쌍용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한한 기능성의 첨단산업. 그 뿌리인 기초과학 기술 연구 개발이 바로 「큰 기업」의 할 일입니다. 기술 개발이 가져다 줄 편리함 못지 않게, 그 기술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또한 「큰 기업」의 할 일입니다. 기술은 오직 인간을 위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술휴머니즘」 정신으로 쌍용은 기초과학 기술의 발전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